

“보해 살리자” 위드 프로젝트 SNS서 인기 폭발



임지선 대표이사

스토리박스 강수훈 대표 캠페인 제안에

이용섭광주시장·유두석 장성군수·시민 등 참여

젊은임새봉사단 연탄배달·취업특강 진행

임지선 대표 목포 먹자골목 화재 성금기탁

보해장학회 3600여명에 35억 장학금 지급



보해 장학회가 지난해 12월 장성공장에서 장학금수여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보해양조(대표이사 임지선)는 광주전남을 대표하는 주류기업이다. 지난 1950년 목포에 터를 잡은 후 지금까지 맛의 고장 광주전남에 남아 있는 유일한 소주 회사다. 강원도 지역 소주가 대기업 자본에 흡수되며 사라졌고, 다른 지역도 막강한 자본력을 갖춘 회사들에게 밀려 지역 기업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보해는 맛의 고장 광주전남을 대표하는 소주로서 우리 지역의 자존심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69년 사랑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광주전남 시도민들에게 보답하고, 한층 더 사랑받는 보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에 나서고 있다.

◇젊은임새 봉사단=보해양조는 광주전남의 미래인 지역 청년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2006년 4월 설립된 젊은임새 봉사단은 지금까지 13년 동안 1200여명이 광주전남을 위한 봉사 활동을 펼쳤다. 전남대와 조선대, 목포대와 순천대 등 광주전남지역 대학생들로 구성된 젊은임새 봉사단은 지역 곳곳을 누비며 연탄배달, 벽화 그리기, 나무심기, 배식활동 등을 통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최근에는 봉사 활동 이외에도 취업특강 등 새로운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며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다.



유두석 장성군수가 보해임새주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며 위드 보해 프로젝트에 동참했다.

지난 4월 6일 조선대학교 입학식에서 ‘젊은임새 취업특강’이 열렸다. 젊은임새 취업특강은 기존 취업특강의 틀을 깨는 시도로 많은 학생들의 큰 지지를 지지를 받았다. 특히 젊은임새 봉사단 출신의 강연자들은 후배들의 궁금증에 솔직한 답을 통해 취업준비생들의 고민과 현실을 함께 하는 등 취업을 위한 실질적 도움을 줬다.

보해양조는 젊은임새 봉사단을 통해 지역의 미래를 이끌 청년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기회를 제공했고 지역기업의 도움이 꼭 필요한 곳을 찾아 직접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사회공헌 활동=임지선 대표는 지난 1월 큰 화재가 발생했던 목포시 산정동 먹자골목 근처 상인들의 피해 복구 성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 임 대표는 최근 임새주 매출이 줄어든 상황에서 예정에 없던 지출이 회사 경영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1000만원 사재출연이라는 통 큰 결정을 내렸다. 지난 69년 동안 보해양조와 함께 울고 웃었던 목포 시민들의 고통을 위로하기 위해 임직원들을 대표해서 임 대표가 직접 나선 것이다.

보해는 지난 2017년 1월 여수 수산시장에서 큰 불이 나서 137개 점포가 피해를 입었을 때도 도움을 손길을 내밀었다. 상인회는 당시 피해규모가 7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보해양조는 상인들이 하루 빨리 피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3600만 원 상당의 제수용 생선과 김, 멸치 등 건어물세트를 구입했다. 보해 임직원들은 물품을 구입하는 것 이외에도 생수와 컵라면 등 화재 현장에 꼭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 길거리 청소소에 나서는 등 피해복구에 앞장섰다.

보해는 성금 기탁 외에도 보해장학회 등 정기적인 나눔도 실천하고 있다. 지난 1981년 설립한 ‘보해장학회’는 지난해까지 37년 동안 3600여명에게 35억여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보해장학회는

광주전남 학생들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인성이 모범적인 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처럼 보해는 오랜 기간 동안 지역민과 상생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힘써왔다. 이러한 노력에 화답하기라도 하듯 올해 들어서 보해양조에 대한 각계각층의 응원이 이어지고 있다.

◇위드 보해 프로젝트=“전라도 소주 보해가 최근 적자를 기록하는 등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경영 개선을 바라는 마음에서 보해와 함께 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지난 1월 광주에서 문화 기획자로 활동하고 있는 스토리박스 강수훈 대표가 자신의 SNS에 남긴 글이다. 그는 보해가 지역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생산 자재를 구입하며, 사회공헌활동을 펼치며 지역 사회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설명과 함께 보해양조 제품을 마시는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리는 캠페인을 제안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강수훈 대표가 지목한 광주재능기부센터 하상용 대표, 디자인기업 바비사인 김진아 실장, 문화기획자 윤현석 씨는 위드 보해 프로젝트에 가까이 동참하며 캠페인 확산에 기여했다. 이후 1월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참여하며 절정에 달했다. 이용섭 시장은 “제가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이든 서민 누구와도 소주 한 잔 나누는 따뜻한 대통령이었습니다. 저도 우



임지선 대표는 지난 1월 사재출연으로 목포시 산정동 화재 피해복구 성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리 시민들과 편하게 소주 한잔 기울이며 마음 터놓고 이야기하는 시장이 되고 싶다”는 글과 함께 보해 임새주를 마시는 사진을 본인의 SNS에 게재에 올렸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보해양조는 지하 253m에서 끌어 올린 천연암반수로 술을 만든다죠?”라는 글과 함께 임새주, 보해복분자주, 매취순, 순희 막걸리 등 제품과 함께 찍은 일식스러운 사진을 SNS페이지에 올려 큰 관심을 받았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지역 기업의 성공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웃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따뜻함이 목포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될 것 입니다”며 위드 보해 프로젝트 동참을 선언했다. 이밖에도 광주전남 수많은 시도민들이 위드 보해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시민들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시작된 위드 보해 프로젝트는 온·오프라인을 넘어 다양한 형태로 확산하고 있다.

보해양조는 위드 보해 프로젝트를 통해 나타난 시도민들의 관심과 지지에 보답하기 위해 2019년 ‘No. 1 beverage company 보해양조’라는 목표를 세웠다. 단순히 매출 1등이 아니라 가장 좋은 제품을 만들어 제일 사랑받는 기업이 되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한국을 대표하는 넘버원 제품 보해복분자를 비롯해 최고의 재료로 만드는 매취순, 광주전남의 자존심인 임새주 등을 통해 광주전남의 술과 문화를 지켜 나갈 계획이다.

임지선 보해양조 대표는 “광주전남 시도민들이 위드 보해 프로젝트라는 커다란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시는 덕분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체 임직원들이 힘을 내고 있다”며 “보해양조는 광주·전남 시도민의 사랑과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창사 67주년
광주일보

www.kepco.co.kr

에너지에서 모든 미래
에너지지식산업

세계 최고를 넘어, 新에너지 세상으로 -

섬은
떨어져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햇살이, 바다가, 바람이
내일의 빛을 만들어줍니다.

자연에서 전기를 만들고
마법처럼 담아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전력이 꿈꾸는
깨끗한 에너지 세상입니다.

세계 1위 전력회사를 넘어
깨끗한 에너지 생태계를 선도하는

Beyond the Top, Leading KEPCO-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본부